

광산구 아파트 경비원 권익보호 선도

광주시 인권 우수실천단지 공모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싸늘이
인권협약·휴게공간 설치 등 호평



광주 광산구 공동주택(아파트)들이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와 처우 개선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의 '2021년 인권 우수실천 단지' 공모에서 광산구 관내 3개 아파트 단지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싸늘이 했다.

공동주택 경비업무나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상대로 한 일명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한 이번 공모는 광주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79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18년 11월부터-2021년 10월까지 37개년간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향상 분야의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세부 평가기준으로 ▲인권관련 협약체결 현황 ▲입주민 인식개선 활동 ▲근로자 휴게공간 설치 및 근로환경 ▲관리규약에 근로자 처우 반영 등 9가지 사항을 서류심사 후 현장 실사를 거쳤다.

광주시는 최근 최우수상 신장6차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우수상 수완6차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장려상 첨단금호어울림테라스 단지 등을 선정했다.

이번 수상으로 광산구의 아파트 공동체 문화 정

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최우수단지로 선정된 신장6차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사진)는 입주자대표 회의와 비정규직지원센터가 협약을 통해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입주인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주택문화 정착에 기여한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단지로 선정된 수완6차 대방노블랜드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반영하는 등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한 부문에서 좋은 점

수를 얻었다. 장려상을 수상한 첨단금호어울림테라스 단지는 아의 근로자의 심터를 마련하기 위해 입주인이 자발적으로 '천원의 행복'이라는 슬로건으로 모금활동을 추진해 모범사례로 평가 받았다.

광주시는 오는 19일 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최우수상 250만원, 우수상 150만원 장려상 100만원 등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행복광산 완성도 높여 새로운 지방자치 선도”

김삼호 광산구청장 신년 기자회견담화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난 18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2년 신년 기자회견담화를 갖고 “지방자치 30주년을 품은 민선 7기의 사명은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다가올 한 세대의 길을 여는 일이었다”며 “그동안 축적한 참여와 자치 역량으로 구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뒷받침했다”고 자평했다. 김 구청장은 “내 삶이 행복한 매력, 활력, 품격 광산”을 민선 7기 구청 목표로 정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또 “민선 7기 들어 집중된 ‘협치’ 사업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인의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뒷받침한 늘행복 프로젝트, 노약자와 동행하며 통원치료를 돕는 ‘휴블런스(휴먼 엠블런스)’, 코로나19로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킨 1% 희망대출 등은 광산구의 대표정책을 이끈 동력이었”다며 “지역에 뿌리내린 협치 문화는 광산 공동체가 코로나19에 잘 대처한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565건의 수상과 공모 선정을 통해 1417억5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성과도 안으로 부서 칸막이를 없애고, 밖으로는 다양한 부문

과 손발을 맞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행복을 구현하는 과학적인 구청 체계를 안착시킨 것 역시 빛나는 결실이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또 “전국 최초로 전담부서를 만들어 행복지표를 개발한 뒤 행복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정책과 자원을 투입한 결과 2021년 행복도가 6.50으로 전년(5.09)보다 증가하는 효과를 냈다”며 “이는 지방정부가 시민행복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남은 임기동안 구정계획도 내놔

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대비하면서 구정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다”면서 “협치에 기반을 둔 민선 7기의 결실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자치분권을 선도할 확실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구청장은 이를 위해 시민 민역력 증진사업과 행복으로 걷기광산, 늘행복 프로젝트를 2.0으로 확대하고, 광주송정역 1시간 맞거리 사업, 광산형 자원 선순환 경제 실현, 메타버스 광산구 월드 구축 등 10대 핵심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메타버스 여행’ ‘코딩교실’ 등

광주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24일부터 28일까지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이야기꽃도서관과 AI(인공지능)·SW(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조선대학교 SW중심대학산업단 조영주 교수의 지도로 진행된다.

24-25일에는 초등학교 대상 겨울 독서교실 ‘신나는 메타버스 여행’, 26-28일에는 청소년 대상 겨울방학특강 ‘메타버스와 함께하는 AI·SW 코딩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하루 2시간씩 이뤄진다. 현실과 가상의 창의적 융합공간인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에 대한 정의 및 이해와 관련 플랫폼 ‘게더타운(Gathertown)’을 이용한 참여형 활동으로 진행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대형 건축공사 현장 긴급 안전점검

광주 광산구는 ‘관내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산구는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비슷한 유형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했다.

광산구는 이튿날 부구청장 주재로 건축공사 사고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주택과 및 건축과 담당 직원들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했다.

광산구는 재해예방 및 시공안전관리와 안전관리계획서 및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관리 등 전반적인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비상연락망 작성 미흡 등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해선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동절기 안전수칙, 현장 안전관리 준수 등을 안내했다.

광산구는 이번 긴급점검을 시작으로 2월 4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건축공사 현장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산구 자동차세 연납 2월3일까지 추가 접수

광주 광산구는 “2022년 1월 연납 자동차세 16만 8623건, 445억 원을 부과하고, 2월3일까지 연납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 2회(6월, 12월) 부과된다. 1월에 선납하면 연 세액의 9.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 납

부의 절세 혜택이 가장 크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로(giro.or.kr)납부를 하면 된다.

또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 ARS 1899-3888 번호로 전화하는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

새벽부터 한밤까지 방역 최전선서 싸우는 공무원들

광산구 유튜브 ‘나도 공무원...’
감염병 대응 업무편 ‘눈길’
땀과 진심 담긴 지원 업무 소개



광산구 ‘나도 공무원이다’ 감염병 대응 업무편 영상 미중그림.

“답답하시더라도 격리하는 동안 잘 참고, 방역수칙도 꼭 지켜주세요.”

새벽에 일을 시작해 깜깜한 밤에 서야 퇴근하기 일쑤다. 방역 현장에 지키는 공무원에겐 ‘칼퇴’는 먼 얘기가 된 지 오래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언젠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상근무’를 마다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공직자들이다.

광산구는 공식 유튜브(YouTube) 채널 ‘광산보소’를 통해 ‘나도 공무원이다-감염병 대응 업무편’을 공개했다.

‘나도 공무원이다’는 시민 행복을 위해 땀 흘리는 공무원의 숨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광산구의 대표 콘텐츠다. 이번 영상은 광산구 감염병 대응지원단의 자가격리 지원 업무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감염병 대응지원단의 하루는 확진자,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자 등 전체 현황을 취합하고, 데이터를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송하고, 지원 물품을 전달하는 일을 분담한다.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로 지금도 수십, 수백 명씩 자가격리자가 쏟아지고, 하루에 보내는 자가격리 통지서도 많을 때는 600~700건에 달한다.

영상은 자가격리 지원 물품 배송에 나선 공무원의 밀착 동행한다. ‘신속 정확’ 배달은 기본. 자가격리로 인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복장까지 신경 쓰는 공무원의 마음 씀을 엿볼 수 있다.

영상을 통해 전해진 모습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힘내세요” 등 시민의 응원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19일 “이번 영상이 자가격리 지원 업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방역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의 노력과 마음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